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파 견 국 가	독일	
파 견 대 학	Osnabrüc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파 견 기 간	시작	2023년 2월
	종료	2023년 7월

준비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단기연수에 파견된 이후 해외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며, 낯선 환경과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더 강인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가장 먼저 고려한 것중 하나는 한국에서의 저의 전공 과목이 파견교에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견교의 위치, 파견교가 위치한 그 나라의 치안과 생활 등을 조사하여 파견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비자는 현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저는 한국에서 받는것이 더 편할 것 같아 미리 대사관을 예약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항공권은 혼자 가는 길이라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인천-프랑크푸르트 직항을 통해 항공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외 준비물 등은 현지 날씨와 상황 등을 조사하여 꾸준히 미리미리 챙겼던 것 같습니다.
	파견학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파견교에서 버디를 지정해주는데, 저의 경우는 공항픽업은 없었고 공항에서 제가

	<p>혼자 기차로 이동한 후에 그 기차역에 버디가 데릴러 나와 주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다같이 모여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었습니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영어수업 중에 선택하여야 하였기에 선택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전공과목과 나머지는 시간표에 맞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활동의 경우 한학기에 1-2번 열리는 international dinner가 있는데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준비해갈 수 있어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오스나브뤼크에는 많은 기숙사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Jahnplatz에 배정되었습니다. 10명이서 주방을 공유하는 구조라 조금 불편하지만, 월세가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하고, 각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p>
<p>주변 환경</p>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제가 거주했던 기숙사는 근처에 Netto(마트), DM과 같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는 곳이 가까워서 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마트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꼭 장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오스나브뤼크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라고 딱히 할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다닐때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워서 좋았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관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양인이 적고, 동양인이 있다면 대부분 교환학생이나 유학온 친구들이라 아시아인의 수가 적습니다.</p>
<p>비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등록금은 명지대학교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따로 파견교에 지불한 것은 없었습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한달에 224유로로 오스나브뤼크의 다른 지역 기숙사를 비롯해서 다른 독일 지역 기숙사보다도 싼 값이라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따로 교재비 같은것은 들지 않았고, 보험의 경우 독일에 유학을 오려면 30세 이하는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공보험을 들것을 요구하는데 공보험이 한달에 117유로 정도로 꽤 비싼편입니다. 하지만 공보험으로 예방주사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찾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생활비</p>
	<p>비자 발급을 위해 슈페어콘토라는 것을 개설하고, 입독이후 한달마다 묶어놓았던 슈페어콘토비를 주게되는데 그 비용이 한달에 934유로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기숙사비를 내고 생활하는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저의 경우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 미리 예약하는 것들로 인해 종종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화를 환전해서 사용하였습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평균적으로 한달에 지출한 비용은 많게는 1300유로로 여행을 다니는 경우에는 한달에 150만원 이상 소비하였던 것 같습니다.</p>
<p>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제게 교환학생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대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생활이 교환학생 생활입니다.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사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혼자 아무의 도움 없이 타국에서 사는 것은 제게 정말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p>	
<p>사진 첨부 (최소 5장)</p>	

[별첨] 수학보고서

